

지역축제의 내실화 방안 마련돼야

김용웅 | 충남발전연구원장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4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지역축제가 개최된다. 충남지역에만 같은 기간 중 공주 동학사 봄꽃, 금산 산 벚꽃, 연기 복사꽃, 당진 매화·진달래 축제 등 각종 봄꽃 축제와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 윤봉길 문화축제, 청양 장승문화축제, 태안 군민 축제 및 지역 특산물인 논산 딸기, 부여 토마토, 보령 및 서천의 키조개 축제 등 20여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지역 이미지 개선과 홍보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지역축제가 지역특산물 판촉, 관광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지역축제를 확대해 왔다. 충남의 경우,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및 강경 젓갈축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산업축제로 각광받고 있다. 그동안 지역축제의 급성장으로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축제의 질적인 측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양산된 축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그동안 지역축제는 지역발전차원에서 급격히 증대됐다. 전국적으로 20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축제가 1995년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1,200여개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무분별하게 양산된 지역축제는 지방행정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양산된 지역축제를 방치하고는 지역축제의 내실화와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충청남도는 지역별로 형태와 개최 시기가 비슷한 지역축제의 자율적인 통폐합을 촉진하여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 대표축제를 선정하여 독창성과 차별성이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시켜야 한

다. 그동안 비슷비슷한 지역축제의 양산으로 일부 지역축제는 활력과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역별로 한두 개의 차별성이 있는 축제만을 선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축제를 차별성과 품격을 갖춘 명품축제로 육성하기 어렵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유이다. 충남은 이미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전략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명품축제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축제 품격을 크게 높여 지역축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지역 단위의 자생적인 축제의 발굴과 육성에 치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주도의 지역축제는 크게 증가했으나 “즐거는 축제”, “흥겨운 축제”, “축제다운 축제” 등 지속성을 갖춘 “자생적 축제”는 많지 않았다. 축제천국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수는 외국과 비교할 때 크게 적다. 프랑스에선 연간 4만개, 일본에서는 3만개의 축제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 단위의 전통적 문화와 예술, 계절적 놀이축제 등 주민들이 스스로 즐기는 축제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관 축제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 지역축제는 관 주도로 추진돼 왔다. 관 주도의 축제개최가 자생적인 생명력을 지닌 축제발전을 막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은 대표축제만을 주도하는 데 한정하고 나머지 축제는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한다. 민간부문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축제 추진 역량강화와 함께 창의적인 축제 프로그램과 문화 상품 개발 및 축제 마케팅 등 전문분야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지역축제는 단순히 지역홍보 및 소득증대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역축제는 주민의 참여와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일탈과 체험의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생활의 활력과 정신적 풍요로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홍보와 경제효과는 주민 모두가 즐기는 축제문화의 부산물이다. 축제의 본질적 가치 실현에 충실해야 지역축제의 진정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 충청투데이 4월 11일(금) 게재